

모바일 선점 홈앤쇼핑 웃고 공기관 뮤인 아임쇼핑 울고

홈&쇼핑

안정적 경영·모바일 전략으로
모바일 주문 비중 80.3% 기록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두 TV
홈쇼핑사가 모바일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일찍부터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펴 왔
고 대표가 중임에 이어 연임까지 하며 올
해로 7년째 경영을 맡고 있어 일관성과
함께 추진력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한 홈
앤쇼핑과, 올 들어 공공기관으로 뮤인 정
부의 입김만 째진데다 '100% 중소기업 제
품 취급'이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공
영홈쇼핑(아임쇼핑)의 이야기다.

특히 아임쇼핑은 지난해 말 대표이사가
공석이 된 후 아직까지 선장 없이 허러가
고 있는 상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모
바일 앱 순이용자수에서 지난 1월 홈쇼핑
업계 1위(코리안클릭 집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부터 계속 선두자리
를 지키고 있다.

소셜, 오픈마켓 등을 포함한 전체 전자
상거래 부문 종합순위에서 홈앤쇼핑은 11
번가, 쿠팡, 위메프, G마켓, 티몬, 옥션에
이어 7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GS홈쇼핑(8위), CJ오쇼핑(9위), 현대
홈쇼핑(10위) 등 대기업 홈쇼핑사들이 오
하려 홈앤쇼핑에 뒤쳐졌다. 아임쇼핑은
23위에 그쳤다.

홈앤쇼핑이 자체 집계한 결과 지난해

자사의 모바일 주문비중은 80.3%를 기록
했다. 이는 2016년 말의 76.9%를 훌쩍 뛰
어넘는 수치다. 홈앤쇼핑을 이용하는 고
객 10명 중 8명이 모바일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셈이다.

TV로 홈쇼핑을 보면서도 주문은 모바
일로 하고, 아예 모바일 앱을 내려받아 방
송과 상관없이 홈앤쇼핑에서 구매하는 고
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취임한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
는 이듬해부터 자신이 직접 모바일 태스
크포스(TF) 팀장을 맡으며 '모바일 퍼스
트' 전략에 주력해왔다. ▲큐레이션 서비
스 ▲간편결제 서비스 '팡팡페이' ▲모바
일 고객평가단 운영 등이 대표적인 서비
스다.

특히 모바일 주문시 10% 할인과 10%
적립 혜택을 주는 '텐텐 프로모션'은 TV
홈쇼핑사로 출발한 홈앤쇼핑을 모바일 강
자로 만들었다.

2020년 5월까지가 임기인 강 대표는 총
9년간 홈앤쇼핑을 이끌게 되면서 보다 적
극적인 드라이브를 펼 수 있게 됐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주문건수 기준으로
모바일 비중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방송과
동시에 모바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갖춰 '동시', '비동
시' 주문 등을 분석해 갈수록 비중이 높아
지고 있는 모바일 부문에 더욱 효과적으
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아임쇼핑은 지난해 모바일
주문건수 비중이 17%를 살짝 넘었다. 올해
는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 첫 해인 2015년 당시 6.7%이던 이
비중이 11.4%(2016년), 17.4%(2017년)
등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그나마



대표 공석·올해 공공기관 지정
100% 中企 취급 등 한계 다다라

위인이다.

하지만 아임쇼핑은 '중소기업 전용 홈
쇼핑'에 걸맞게 TV와 모바일 모두 100%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중소기업 제품 비중이 TV는
80%이지만 모바일에선 제한이 없는 홈앤
쇼핑에 비해 운신의 폭이 적다.

아임쇼핑은 또 방송 제품을 모바일에서
구매할 경우 3% 할인해주고 있지만 홈앤
쇼핑의 '할인 10%+적립 10%'에 비하면
혜택이 적다.

업계 관계자는 "아임쇼핑이 중소기업
판로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탄생하긴 했지
만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모바일에서까
지 '100%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활동반경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다가 정부가 대주주
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는 홈쇼핑 업계와
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아임쇼핑은 취급액 기준으
로 지난해 5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
으로 알려졌다. 아임쇼핑보다 3년 일찍 개
국한 홈앤쇼핑은 같은 기간 2조1517억원
의 매출을 올렸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에너지분야 임팩트 투자 지원' 협약식



한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협약

한국전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해외판로 확
대, 임팩트투자 지원 협약식을 갖고 열매나눔재
단과 한국사회투자에 각각 1억5000만원, 2억원
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해외판로 확대 지원
은 국제 박람회 참석 및 수출 계약 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20개사의 해외 매출 확대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임팩트 투자 지원은 사회적기
업 2곳의 에너지분야 소셜 프로젝트에 한전이 2
억원을 투자하고, 한국사회투자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한전 아트센터
에서 투자지원 협약식을 갖고 관계자들이 기념촬
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성실실패 기업인에 최대 8000만원 지원… 재창업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성공패키지' 290명 선정

성실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돋는 '재도
전성공패키지'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재창업자를 5일부터 모집
한다고 4일 밝혔다.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290
명 내외로 이번 모집에서 210명, 6월에 예
정인 2차 모집에서 80명을 각각 뽑는다.

대상자로 선정된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는 10개월의
협약기간 동안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
링, 사무공간, 사업화 비용 등 종합적인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재창업자의 사업계획 진행단계를
고려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
으로,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졸업기업 중 매출·고용 등 우수 성과
창출기업을 대상으로는 아이템 성능개선,
마케팅 등 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후속자금
도 최대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재창
업기업의 지속성장도 도울 예정이다.

올해에는 민간투자, 재도전성공패키
지, 재도전R&D 등을 연계지원하는 '투자
연계형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

엔젤투자자들 민간투자자(주관기관)의
소액투자를 받은 재창업자에 대해 재도전
성공패키지와 엔젤매칭펀드를 지원하고,
2년차에 후속자금지원과 기술개발까지 연
계지원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31일 개
정된 성실경영평가 제도가 적용돼 과거
경영, 노동 관련 법령위반에 있더라도 경
증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이사장에 이상직 前 의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엔 신영선



소기업의 애로사
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몸소 체험했으
로 이 경험을 살
려 현장에서 속도
감 있게 일하겠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
상직 전 의원(사진)이 최종 확정됐다.

공석이었던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
회장에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앉는다.

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상직
중진공 17대 이사장은 5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이 신임 이사장은 지난해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후보군에도 거론됐던 인
물로 이후엔 중진공 이사장 내정설까
지 불거진 뒤 실제 이사장으로 최종
낙점됐다.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8월부터 비어
있던 상근부회장 자리에 신영선 공정
위 부위원장장을 이날 최종 영입키로 확
정했다.

신 영입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정위에서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
국장, 사무처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 이 이사장의 두 자녀는 이스타항공
을 지배하는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 김제가 고향으로 지난 대선에
선 문재인 캠프의 직능본부 수석부본
부장을, 지난해부터는 새 정부에서 출
범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으로 각각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어떻게 해야 중
소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보자"라
며 "앞으로 중진공이 중소기업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롯데글로벌로지스, 저개발국 돋는 '천연비누 만들기' 봉사활동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저개발국 돋는 '천연비누 만들기' 봉사활동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사롯데봉사단이 아동을 돋기 위한 '천연비누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천연비누만들기는 저개발국 아동들의 질병예방 및 말라리아 모기 퇴치를 위해 국제 구호 단체인 월드쉐어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이다. 사롯데봉사단 40여명은 이날 월드쉐어 구로 본사에서 천연비누를 제작해 월드쉐어에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롯데봉사단이 말라리아 예방 천연비누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소상공인 혜택 꽉꽉 담은 전용카드 출시

중기중앙회-신한카드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선봬



중소기업중앙회는 신한카드와 제휴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전용 제휴카드를 5
일부터 새로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휴카드는 기존에 존재하던 카드상품이
아닌 가입자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 선보이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로 업계 최고 수
준의 혜택을 담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들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할인
점, 전자상거래, 이동통신, 전기요금 등
주요 사업성 경비에 대해 1~5%,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소비에 대해 0.15%의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 적립과 함께 주유,
병·의원, 교통 등 생활밀착형 소비에 대해
청구 할인 혜택이 대표적이다.

또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월 5만
5000원의 포인트 적립 및 1만5000원의 할
인율을 통해 연간 최대 84만원의 혜택을 누
릴 수 있다.

카드 플레이트에 노란우산공제 계약번
호를 넣어 ID 카드 기능도 부여했으며 별
도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 없이 이 카
드만 있으면 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는 휴
양시설 이용, 콘도, 건강검진 등 여려 복
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